

# 푸소체험, 강진 농가소득의 귀중한 젓줄



지난해 강진군 푸소체험을 다녀간 청운중 학생들. 강진 푸소체험은 전국에서 수확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강진군 '푸소체험'이 이젠 강진 농가소득의 귀중한 젓줄이 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6 농가가 참여해 농가당 연평균 100만원 수준이었던 소득이 지난해에는 121농가가 참여해 농가당 평균 500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렸다. 체험 농가들의 소득을 합치면 전체 5억원의 훨씬 넘어선다. 올해 목표는 7억 원이다.

푸소체험 운영농가인 한 귀촌인은 "푸소체험에 참여한 대도시,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한 것은

행운이다. 주부로서, 생활인으로서 솔직하게 소득이 짝퉁하다. 다른 집들과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벌었다"고 말했다.

소득과 비례해 푸소체험 참여도 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4년째에 접어들면서 3월말 현재 기준으로 푸소체험을 신청하거나 예약한 학생은 7천244명이다. 공무원 1천950명, 민간인 143명을 합치면 1만명에 이른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대전 중앙중 2학년생 100명이

2015년 농가당 100만원→지난해 500만원

학생·공무원 예약 인원 벌써 1만명 육박해

푸소체험을 했다.

지난해 서울 청운중에 이어 충청권 중학생들이 강진을 찾은 것이다.

오는 5월에는 서울 동성중 학생 120명에 이어 같은 달 경기도 안성 비룡초 어린이들이 푸소체험에 동참한다. 서울 청운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2박3일간 강진을 다시 찾는다. 여기에다 수도권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 강진에서의 하룻밤을 선사할 일까지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관광정책에 적극 공감 강진 내들이를 계획한 여행사는 서울에 있는 여행공방'.

여행공방을 통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강진 푸소체험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70명. 이들의 국적은 다양하다. 미국과 인도,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독일, 스웨덴, 칠레, 싱가포르, 벨기에, 영국 등.

첫날인 7일에는 강진에서 점심을 먹은 뒤 고려청자박물관과 민화뮤지엄에서 강진 고려청자의 역사와

문화, 민화의 특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 이후 푸소 농가로 이동,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날인 8일에는 강진만 생태공원으로 가 강진만의 멋진 풍광을 카메라에 담는다. 생태공원 관광을 끝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로 향한다.

여행공방 강호선 대표는 "강진이 갖고 있는 여행관광 요소들은 외국인들이 보고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면 '정지축제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뿐만 아니라 이번 푸소체험 역시 강진의 특성과 강점을 충분히 반영한 일정이라서 모두들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푸소체험 담당자는 "강진은 다산 정약용 유적지와 영랑 김윤식 생가 등 역사문화 유적이 많아 '남도답사 1번지'로 불리고 있다"며 "지난해 강진 방문의 해 성공에 이어 올해는 'A로의 초대' 정책이다 푸소체험 프로그램을 덧붙여 더욱 많은 이들이 강진을 찾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암군, 전남체육대회 자원봉사교육 성료

300여명 참석 자원봉사자의 자세 및 역할 주제

영암군은 지난 10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자원봉사단체장과 자원봉사자, 관계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자원봉사센터 이장태 사무처장의 '자원봉사자의 자세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자원봉사 자세로 크게 열정, 안전, 친절 세가지를 강조하였으며, 체육대회 주요행사 및 자원봉사 근무원칙, 임무수행에 따

른 예절교육이 있었다.

황인섭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자원봉사자는 영암군의 얼굴이라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인드와 주인의식으로 즐겁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참석자 등 전남체전 자원봉사자 511명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가 열리는 영암군 일원에서 일자별로 행사안내, 행사지원, 급수봉사, 교통, 환경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 진도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귀농·귀촌 홍보

재경향우들도 고향 활력 위해 도시민 유치 나서



진도군이 도시민 유치를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도권 향우와 함께하는 2018 전라남도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이번 박람회는 재경향우회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지원정책, 영농

여건 등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귀농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함께 지역의 대표 농·특산물인 홍주와 구기자, 흑미, 울금 관련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향우들의 특별 현장공연을 통해 한마음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와 홍보에 나섰다. 진도군은 지난 2015년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한 후 맞춤형 정보제공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조 기정착을 돕고 있다.

또 귀농인 정착자금, 영농자재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와 이사비

지원,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귀농인 정·장년 창업 지원과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광석 재경진도향우회장은 "문화예술의 고장 진도가 귀농귀촌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고향의 활력 증진에 앞장 서겠다"며 "향우들이 귀농·귀촌 할 경우 고향 연고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담당 관계자는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와 주택 구입이 저렴해 원거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최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단계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인구유입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목포시, 시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 실시

목포시가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회장 김병록)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시민위원회 위원 등 자생조직 등 130여 명이 참석하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가 지방예산 이해, 좋은 예산센터 오관영 이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소개 및 활용 방안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2019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공모(5월 30일까지), 각종 지역회의(4~5월), 분과위원회 회의(6월), 시민위원회 총회(7월)를 통해 예산안이 확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 곡성군 건강지도자 '심폐소생술' 실습

곡성군 보건의료원(원장 김영락)은 지난 10일 의료원 농업인재활센터에서 건강지도자 25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은 순천성기물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김철 센터장의 강의로 진행했으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4분의 중요성을 알리고 마네킹을 이

용하여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제세동기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실습했다.

김영락 원장은 "건강지도자들의 경우 마을주민들에게 건강도우미 역할을 하므로 평상시 심폐소생술의 숙달 및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